

“더 나은 세상으로 브랜딩하다” 엘레먼트컴퍼니 대표 최장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엘레먼트컴퍼니(LMNT COMPANY)의 최장순 대표는 지난 14년 동안 인천국제공항,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구찌, LG전자 등 국내 유수기업들을 브랜딩 한 명실상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브랜딩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단체,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브랜드 컨설팅을 맡기도 했다.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것. 그렇기에 그가 보여준 행보는 더욱 의미 있다. 글 | 김희재 사진 | 이세원

#군 생활 3년, 그가 얻은 것

인터뷰 요청 문의를 드렸을 때, 훈련소에서 소대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면서 반색을 표하셨어요 군과 관련된 곳에서 연락을 주셔서 정말 기쁘죠. 영광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공군 학사장교에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니 병으로 가기엔 나이가 있던 터라 장교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공군 부사관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군을 선택하게 됐죠. 사실 시험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재수해서 들어갔죠.

당시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부모님께서 엄청 만족해하셨죠. 특히 아버지께서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어른들 반응은 대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어른들을 뵈 땐 일부러 제복을 입기도 하고 그랬죠.(웃음)

군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신다면 언제인가요
훈련소 소대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훈련병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제가 기수마다 이벤트를 꼭 했거든요. 가령 취침소등 하고 나서 탄피가 없어졌다고 소대원들을 불러 모아 짜파게티를 끓여줬죠. 훈련병들과 지냈던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한 추억이에요.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많은 훈련병을 만나셨을 텐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훈련병이 있으신가요
훈련병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전 소대원이 그 친구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챙겨줘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죠. 사실 함께 뭉치고 서로 도우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사회에서는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군 생활을 원래부터 잘했던 친구들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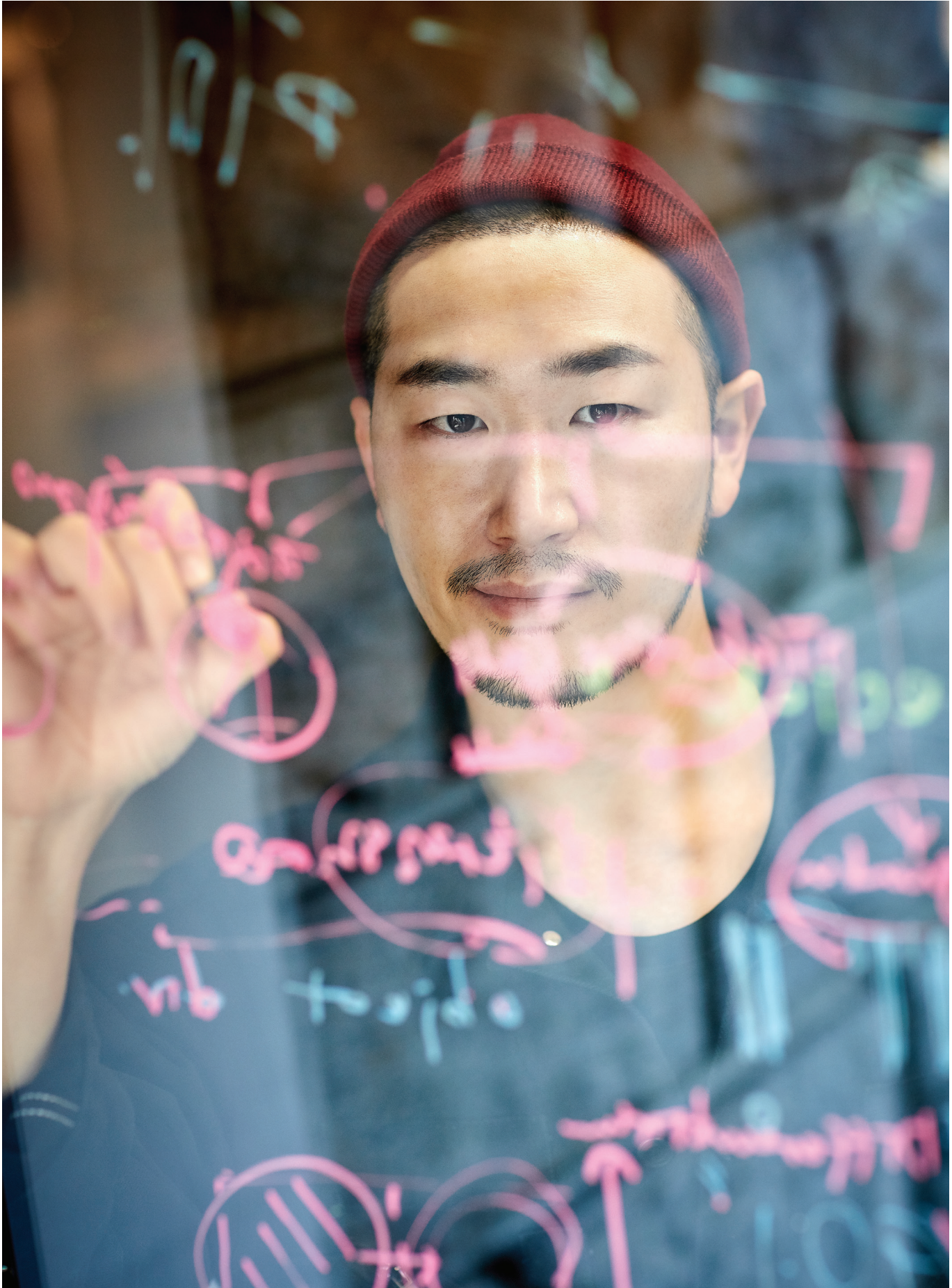
못했던 친구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못했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래 생각나죠.

힘든 군 생활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당연히 동기죠. 저는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인내심을 키우는 훈련이 많았어요. 그래서 훈련 강도가 높은 편이었죠. 특히 화생방 훈련. 저 때는 방독면을 벗고 군가 두 곡 4절까지 부르고 나왔어요.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동기 손을 꼭 잡고 '내가 일탈하면 동기들도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며 버티고 버텼어요.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거나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마다 옆에 있는 동기들이 큰 힘이 됐죠.

장교 생활을 통해 배우신 점은 무엇이며, 지금 하시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솔직히 군대를 굉장히 가기 싫어했는데, 다녀와서 인간이 된 케이스예요. 입대 전엔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었고, 논쟁을 하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하려고 했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좀 우월하다고 판단되면 그 누구든 깔아뭉개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대부분 고쳤죠. 사소한 것이라도 양보하는 선배들을 보며 정말 많이 반성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훈련병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소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컸었는데요. 그때의 고찰과 경험이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한번은 소위 때, 저희 소대가 큰 실외 화장실 청소를 맡은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대변이 넘친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통 기업에서는 R&R(Role and Responsibility)이라고 하죠. 역할과 책임. 소대원 50명을 10명씩 나눠 담당 구역을 정해줬는데, 변기 쪽을 맡은 친구들이 대변을 못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대변을 치웠죠. 장교들은 매사에 술선수범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제서야 소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저와 임원들, 디렉터들이 먼저 하죠. 그러면 후배들과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군대에서 터득한 나름의 전략이죠.





훈련소는 군 생활의 첫 단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훈련소 소대장 출신으로서 현재 훈련병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리운 법이죠. 저도 이제 마흔이 넘다 보니, 군대에 있었을 때가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강했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훈련소 시절, 의지나 기개가 대단하죠. 사회에 나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그래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겠지만, 견뎌낸다면 훗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힘내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브랜딩 전문가, 기획자 등 대표님의 명칭이 다양한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세요.(웃음) 간단히 말하자면 브랜드 네임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의 매력적인 소구점을 찾아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웹사이트도 만들고요. 필요하면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이벤트 프로그램도 기획해요. 그리고 브랜드의 무형자산이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측정도 하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자로 1년 정도 일하시다가 기획자로 전향하셨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종교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떨어져서 비슷한 학과를 찾는데 언어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4년 내내 교전 읽고, 글 쓰고, 토론하고,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 인턴십 경험 같은 건 없었어요.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돈을 모아서 유학 가려고 했죠. 그러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글 쓰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교수신문사에 지원했어요. 기자로 1년 정도 일하다가 신문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됐죠. 이후 언어학 전공과 글 관련된 일을 찾다 보니,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구글과 브랜드앤컴퍼니. 구글은 연봉이 제 기대보다 낮게 책정돼 포기했어요. 그래서 브랜드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이름을 짓는 '네이머'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규모와 상관없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들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진행한 프로젝트도 보람차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오히려 작은 업체와 했던 작업이에요. 물론 금전적으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죠.(웃음) 하지만 저희가 VIP로 생각하는 고객은 큰돈을 주는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주는 기업이에요. 제가 독립해 회사를 차리면서 같은 시기에 창업했던 업체들이 있어요. 유아용품 브랜드인 비오, 미국국 밀키트 제품을 만드는 씨드(SEA.D) 등등. 창업 초기부터 함께 작업하면서 동지애 같은 게 생겼죠. 아, 해외에서

포기하고 싶거나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마다 옆에 있는 동기들이 큰 힘이 됐죠 99

진행한 한글 캠페인도 기억에 남네요. 캠페인 이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에서 10월 9일을 기념일로 정했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이든 끝나면 모든 게 다 아쉽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딱 하나를 꼽자면 구찌(GUCCI) 프로젝트예요. 팝업스토어 디자인을 했는데요. 지금보다 경험이 적었던 때라 서툴기도 했고 해매기도 많이 해맸죠.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는 매일 일본일초가 지날 때마다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프로젝트들이 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매아리(매일 부르고 싶은 아름다운 이름)'라는 공익단체를 만들어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매아리'는 지난 2009년에 만든 공익 브랜드 모임인데요. 복지단체나 사회적 기업에 무료로 이름을 만들어드리는 활동을 했어요. 대기업들이 쓰지도 않는 상표 수백 개를 출원해서, 돈이 없는 영세 상인들이나 개인들은 좋은 이름을 쓸 수가 없죠. 언어라는 걸 독점할 수 없는 건데, 자본이 언어를 도둑질했다고 생각했어요. 도둑맞은 언어를 찾아드린다는 취지로 시작한 거죠. 하다 보니 이름만 바뀌어서 후원금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브랜드 전략, 디자인, 캠페인 기획 등 종합적인 브랜드를 지원했어요. 9년 정도 하다가 말고 있던 대표직을 다른 동료들에게 넘겼는데, 저와 소명이 달랐나 봐요.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죠. 일단 중지 상태예요. 여유를 찾으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세 가지를 꼽으신다면요

솔직히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엉덩이로 공부했던 스타일이죠. 기획도 엉덩이로 하는 편이고요. 한 번 앉으면 저는 15시간씩 앉아 있어요. 거리를 다니며 관찰할 때도 쉼 없이 다니죠. 그래서 첫째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해요. 둘째는 섬세함.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죠. 마지막은 체력. 앞선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좋은 기획의 바탕엔 탄탄한 팀워크가 있죠. 꼭 기획이 아니더라도 팀워크는 어디서나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도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팀워크란 무엇이며, 팀워크를 잘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길을 벗어나 충돌을 통해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매아리’와 ‘엘레멘트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99

저희 회사의 행동 강령 중 하나인데요. 아이디어(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한 모임)은 수평적으로, 의결 실행은 수직적으로. 모든 걸 수평적으로 만들면 아이디어를 할 땐 도움이 많이 돼요.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디어를 선정해 구체화시킬 때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유지되기 어렵더라고요. 따라서 의결 과정에서는 수직적 구조가 꼭 필요하죠. 그만큼 PM(Project Manager)은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가 서로의 레퍼런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끈끈한 팀워크가 생기는 거죠.

젊은 후배들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른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건네주시나요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가 아장스망(agency)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장스망은 ‘재배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컵에 물을 따르면 그냥 물컵이죠. 하지만 물을 버리고 연필을 꽂으면 연필꽂이가 돼요. 이렇게 아장스망 하면 의미가 달라지고, 새로운 기획이 생기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는 특이한 곳에 가고,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감을 받을 순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이죠. 후배들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라고 하면, 저는 딱 잘라 이렇게 말해요. ‘네 머릿속에 그만큼밖에 안 들어 있는 거야.’ 그럼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을 읽는 건 당연하고, 영화를 보는 것도, 관찰을 하는 것도,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공부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해석해보는 것도 공부고요. 저는 기획의 99%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힘

대표님의 독서 습관 혹은 지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은 라면이 아니다. 제가 책을 대하는 태도예요. 메타포적인 표현이지만 라면은 한 봉지 먹고, 부족하면 또 한 봉지 먹잖아요. 하지만 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책 한 권을 다 읽어야지만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권을 병독할 수가 있죠. 제가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그러는데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십 권의 책을 모두 펼쳐놓고 봐요. 당연히 다 정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만 보는 책도 있고, 스캐닝 하듯 보는 책도 있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무언가에 따라 독서 방법을 달리하는 편이에요.

대표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이며, 독서의 가치나 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로고스(logos)’라고 하는데, 원래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책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즉, 책을 통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은 검증된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잖아요. 내 세계,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무기를 줄 수 있죠. 보다 넓은 사고로의 확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인생책’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저도 100% 다 이해했다고 보진 않는데, 칼 마르크스가 23살에 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책에 나오는 원자의 운동론에 대한 해석이 공동체를 대하는 저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간단히 말하자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 원자는 평행하게 수직 낙하운동만 해요. 서로 만날 일이 없겠죠. 반면 에피쿠로스는 해석을 달리하죠. 철학자 루크레티우스가 에피쿠로스의 원자 운동을 설명하면서 ‘클리나멘(clinamen)’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울어져 빗겨감 혹은 벗어남’을 뜻하는데, 원자가 휘어지고 다른 원자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원자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수직 낙하운동을 하는 원자는 주어진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원자가 방향을 바꿔 다른 원자와 부딪힌다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죠. 마르크스는 이 충돌을 개인적으로는 ‘사랑’, 사회적으로는 ‘우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청년 마르크스의 그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 충돌을 통해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매아리’와 ‘엘레멘트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20대 장병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일단 군대에서는 색다른, 평소에 읽지 않았던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편소설보다는 『태백산맥』 『아리랑』 같은 장편소설을 추천해요. 사회에 나오면 읽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삼국지』는 군대에서 보면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대신 ‘평역’ 말고 ‘정역’으로 읽어야죠. 아, 최근에 『수호지』 원본 번역이 나왔더라고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한 권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본 건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고 예편하신 표명렬 장군께서 쓰신 책이죠. 살면서 점점 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군대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군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역지로 끌려왔지만 의지가 강해져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군인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많아요. 특히 전세계 군인 중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비해 복제 시스템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전까지 솔직히 얼마나 촌스러웠습니까. 저는 옷에 다소 민감한 편이라, 우스갯소리로 군복이 멋있으면 말뚝을 박았을지도 몰라요.(웃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1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올해 시무식을 하면서 저희 회사의 2021년 목표를 '슈퍼 베이직'이라고 잡았어요. 코로나19가 야기한 '브이노믹스(V-nomics)'로 인해 위기를 맞은 곳들이 많죠. 반면 타격을 받지 않은 곳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탄탄하고, 차별성과 독특성을 가진 곳들이죠. 그래서 올해는 베이직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베이직을 기반으로 슈퍼(super)한 지점,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는요

지금껏 건강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군 생활 3년 동안 쌓았던 체력으로 버텼어요. 이제는 체력을 좀 키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거창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프리허그를 시작한 그 누군가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매아리' 활동은 그런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과 그 위대한 활동을 어떻게 하면 병행할 수 있을지 찾는 게 향후 몇 년간 풀어야 할 과제예요.

마지막으로 군에서 새해를 맞이한 후배 장병들에게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무엇보다 건강, 특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태해지는 순간, 꼭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늘 죽음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군 생활하시고, 무사히 사회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H**

Profile

출생 1980년 소속 엘레멘트컴퍼니(대표이사) 학력 고려대학교 언어학 학사
수상 2020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 엑셀런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활동 '기획자의 습관', '의미의 발견', '본질의 발견', 등 집필